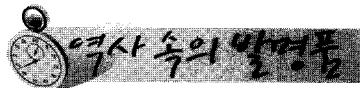


발명은 글로벌 시대를 여는 도전 정신입니다



베네딕투스의 '안전유리'

질 좋은 유리는 보석처럼 아름답고, 뛰어난 유리 세공품 중에는 비싼 예술작품도 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유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유리는 폐니카아인들에 의해 발견되어 그들의 손재주로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빠른 발전을 거듭했다. 그중 프랑스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는 우연히 자동차 사고를 목격, 자동차의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안에 있던 여인이 크게 다치는 모습을 보고 셀룰로이드에 관한 실험을 생각하고 깨지지 않는 유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15년이 흐른 어느 날, 고양이가 그의 실험실에서 플라스크를 떨어뜨렸는데 깨진 플라스크가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금만 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다. 그후 베네딕투스는 유리판 사이에 셀룰로이드 막을 넣어 안전유리를 발명했다.

사카이의 '완구 강아지'

일본에 사카이라는 완구 발명가가 있었다. 그의 소원은 자신이 만든 완구용 강아지가 하루에 50마리 이상 팔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30마리 밖에는 팔리지 않았다. 사카이는 그 원인을 생각하다가 강아지를 사가는 이유가 귀엽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후 그는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강아지가 조그맣고 빨간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가장 귀엽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완구용 강아지에 빨간 비닐 테이프를 잘라 접착제로 붙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대성공이었다. 하루에 50마리만 팔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며 소원하던 그의 완구 강아지는 순식간에 2천마리씩 팔려 나가게 된 것이다. 간단한 아이디어였지만 빨간 혀 하나로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다.

페인타 부부의 '왕관 병뚜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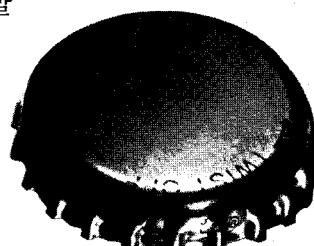
1백여년 이상 전세계 병마개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왕관 병뚜껑'은 농부인 윌리엄 페인타의 집념과 부인의 순간적인 기지가 만들어낸 부부 합작품이다.

페인타 부부는 시카고 근교의 농촌에서 금슬 좋은 부부로 농사일을 하며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침 일찍 농장에 나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페인타는 소다수 병을 따 단숨에 들이켰다. 그런데 갈증이 사라지기는 커녕 극심한 복통이 왔다. 병마개가 엉성해 소다수가 변질된 탓이었음을 안 페인타는 사흘간 죽을 고생을 하며 완벽한 병뚜껑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5년간 6백여 종 3천여개의 병마개를 모으며 연구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어 실망하고 있던 중, 그의 아내가 말을 던졌다.

'병뚜껑을 모자처럼 썬 다음, 그 둘레를 왕관 모양으로 꽉 찍어 놀려요.'

그의 아내의 한마디에 지금의 왕관 병뚜껑이 탄생하게 되었다.



적외선 구이기

이 고안은 음식물이나 소독이 필요한 물질 등에 적외선을 쪘도록 함으로써 구이용으로 사용될 때 기존의 직화구이 장치의 단점인 음식물이 타거나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업 성

고기를 구워먹는 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에 보급이 가능하고, 이 구이기를 사용하여 구운 고기는 한번 먹어본 사람은 잊지 못할 정도로 독특한 맛을 전달해주는 특징이 있다.

요식업소 3백여개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한 결과 의 사용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만원대로 가격을 설정한다면 저렴한 편이어서 영업적 전망도 꽤 밝은 편이다.

응용분야

- 통닭, 삼겹살, 갈비, 불고기,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물을 구울 수 있다.
-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올려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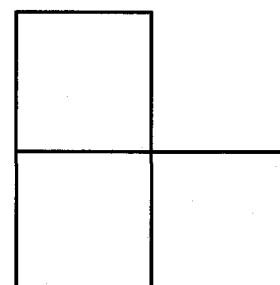
발명가 : 현광수
출원번호 : 19990068607

함께
풀어봅시다!

같은 모양, 같은 크기로 등분하기

다음 도형을 같은 모양, 같은 크기로 4등분 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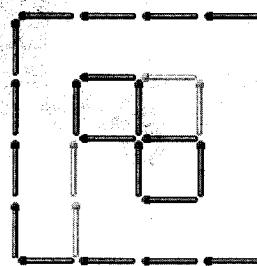
(단, 도형 안의 사각형들은 모두 합동인 정사각형)



[지난 호 문제]

정사각형 만들어 보세요!

[해답] 1



해답은 다음 호에...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풀이를 기다립니다.
20일까지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보내주세요.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자식재산센터 17층 '한국여성발명협회' 앞
(02)538-2710/2702
e-mail: kwia@inventor.or.kr

② 특히 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면?

A 특히의 무효심판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법정 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의 무효처분은 특허권침해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재판에서 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무효심판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법 제133조). 무효심판은 최초로 하여된 특허권을 계속 방지하면 특허권자의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특허를 정리하려는 취지입니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가.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이해관계인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사용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

나. 피청구인 : 특허권자

다.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가능(법 제133조 제2항)

2. 무효사유(법 제133조 제1항)

특허 무효사유는 법정되어 있어 그것 이외의 다른 사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하여된 경우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 무권리자에 권리가 하여 된 경우 등

3. 무효의 효과

가.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깁니다(법 제133조 제3항). 보상금청구권도 특허가 무효 된 경우에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실시료·손해배상금의 반환문제 실시권 설정계약 당시에 특허가 무효된 경우 이미 지급한 실시료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는 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실시료를 반환해야 하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실시료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무효된 특허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실시권의 경우와는 달리 특허권자는 그 손해 배상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 무효심판 절차

일반적으로는 특허 이의신청의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무효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서상의 기재 사항, 기재여부 및 납부여부에 대한 방식상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부분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며, 무효심판 청구인과 특허권자 상호간의 변박·반박 등의 절차를 통해 무효심판청구 이유의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무효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심판청구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인용하는 심결로서 무효심결을 하게 됩니다.